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4 | Vol. 227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법왕사 만불전 · 본당

## 단집 조성 모연문



단집은 법당에 모신 불보살을 장엄하는 하나의 장치로 불상 위에 또 하나의 집을 지어 올린 것으로 마치 집을 겹쳐 지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집이라 일컫습니다.

수천 조각의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짜 맞춘 극히 섬세하고 화려한 단집은 예부터 불전이나 궁전에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그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단집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부처님 머리 위에 설치한 일종의 장엄구인 보개(寶蓋, 또는 天蓋)로서의 상징성이며, 다른 하나는 법당을 불국정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집은 불국정도의 궁전 모습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단집을 조성함으로써 법당은 비로소 불국정도가 되며 불보살님의 위엄과 권위를 극대로 장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법당 본존불 위에 단집을 조성하여 법당을 더욱 여법하게 조성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각령단[覺靈壇] 조성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원공당 정무 큰스님은 법왕사의 회주로 주석하시다가 지난 2011년 입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전강스님의 법맥을 이으시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주신 분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높이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본당에 조성코자 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각령이란 입적한 고승(高僧)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깨침의 향기  
마음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은 늘 밝습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제24회 백고좌 법회를 열면서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불교의 근본 원리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Ⅷ  
주존불을 알면 전각을 알 수 있다 · 조명래
- 20 명찰순례  
자연과의 절묘한 조화로 아름다움이 가득한, 선암사
- 24 특집 / 백고좌법회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100일간의 대법회 백고좌법회
- 27 법왕사소식
- 32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수성 라 00017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57(서기 2013)년 04월 01일 발행 | 통권\_227호 | 종무소\_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마음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은 늘 밝습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본래 업이 없고 본래 죄가 없고 본래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아프고 죄를 짓는 것은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만 똑바로 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침’이 없고 물 흐르듯 원만히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법회에 참석해 열심히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갔다고 해서 자책(自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열심히 다니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보면 ‘일념즉 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긴 시간이 곧바로 일념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겁이다’는 뜻입니다.

하는 등 마는 등 지지부진하게 하면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깨달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고 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면 한 순간에 부처님 땅으로 뛰어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일은 날마다 하는 것이지만 법회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법회가 있는 날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회에 다니다보면 어느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설법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관문상(慣聞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나 잘 아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고 건성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진전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전력을 다하듯이 법문을 듣는 매순간마다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애상(懸崖想)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범부들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려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절절히 먹으면 우리 몸뚱이는 가벼워집니다. 날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극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 천리길도 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사(謨事)는 재인(在人)이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사마의와 그

의 아들들을 호로곡으로 몰아넣고 화공을 써서 전멸시키려 하였으나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사마의 부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한탄하면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짐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한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제갈량이 그렇게 병법(兵法)을 잘 알고 술수가 많아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부처님이시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즉 모사는 재천이고 성사는 재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온갖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 깨달음이 성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래 업(業)이 없고 본래

죄(罪)가 없고 본래 병(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아프고 죄를 짓는 것은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회(懺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참, 사참이라는 것입니다. 이참(理懺)은 마음으로 진실(眞實)로 참회하는 것이고 사참(事懺)은 예불을 드리거나 불경을 외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참이 안 되어서는 사참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량겁(無量劫)으로 지어온 업은 바다보다 크고 태산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 사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치(理致)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얽히고설켜어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늘 밝습니다. 이렇듯 먼저 본래 업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아는 것이 이참입니다. 그래서 이참을 하고 난 뒤 사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은 뒤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세계에는 병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리는 본래 자성의 자리인데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업을 짓다보니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원래 병이 없었는데 업을 지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약을 먹으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 경적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인데 우리 불자들의 처지는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르고 틀려도 부처님의 법은 한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면 무량업장이 없어질 것입니다. 병고와 액난이 없고 걱정근심이 없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 제24회 백고좌 법회를 열면서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봄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어느 듯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한 봄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분주했던 정월의 행사들도 끝나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백고좌법회가 잡힙니다. 그만큼 백고좌법회는 우리 법왕사를 상징하는 법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가장 귀한 일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법왕사가 20여년 전 천막법당으로 창건하였을 당시부터 단 한 번도 고승대덕을 초청하는 법문을 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 삭풍이 몰아치는 산 속에 천막을 둘러치고 처음 법회를 열던 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중생구제의 신심으로 가슴벅찼던 그 신선한 느낌은 지금도 새삼스럽습니다. 천막법당도 마다하지 않고 먼 길 한걸음에 달려와 사자후를 토하신 큰스님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백고좌 법회란 일백인의 고승을 초청하여 100일 동안 연속하여 설법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백고좌 법회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개

최되어 왔던 법회로, 신라 진평왕(613년) 7월에 수나라 사신 왕세의가 왔을 때, 황룡사에서 백고좌 법상을 차리고 당시의 고승인 원광법사와 기라성 같은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경법을 설하였던 것이 시초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후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워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국가와 불교계가 합심하여 이러한 백고좌 법회를 열어왔다고 하는데 이는 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매년 개최하였다고 하니 당시 불교의 활발한 신앙활동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법왕사에서는 백고좌 법회를 추진하면서 또한 옛 신라불교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영남지역 최초로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의 거룩한 법회처럼 장엄시켜 전통 불교의식을 구현하는 등 한국불교계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데 힘이 되고 우리 민족과 사회의 행복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회의 주제는 불교의 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울론 삼장 대설법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을 비롯하여 최상승 경전인 법화

경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고승대덕들의 사자후가 펼쳐집니다.

이렇듯 경울론의 큰 바다에 담긴 진리의 세계를 평생 연구하고 정진해오신 큰스님들이 수십년 닦아오신 수행력으로 우리 불자님들 가슴에 귀한 법문을 전달할 것입니다. 설법은 교계의 강사, 율사, 선사, 그외 대덕스님들, 종파와 교파를 초월하여 초빙되어 각기 수행한 분야의 경전을 강설하게 됩니다.

●●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접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백천만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깊고 깊으며 미묘하기 그지 없는 법음을 불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비슬산 법왕사에 영남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동참하셔서 생에 한 번이 될 수 있는 백고좌 법회에서 진리의 세계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한 진행과 회향을 바랍니다.

#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불교의 근본 원리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인간은 본래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결점은

‘바른 생각을 벗어난 정신의 장님이다’

그것은 사람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미혹을 사실인양 빠져들게 만든다. <세네카>



불교의 ‘심성(心性)’이 가리키는 바 ‘성향적 성품’이 지니는 ‘기(氣)의 질(質)’을 두고 체질적이다, 신경질적이다, 고질적이다, 악질적이다, 선병질적(腺病質的)이라고 하는, 이 ‘기의 형질(形質)’에 따라 청(淸)한 기와 탁(濁)한 기로 나눈다. 청한 기는 청한 대로, 탁한 기는 탁한 대로 두텁고 얽은 품성이 갖는 정도에 있어 다시 순수한 의기(義氣)와 혼재된 오기(汚氣)로 달리한다.

내용적으로는, 내향적 성향·외향적 성향, 소심한 성격·적극적인 성격, 유순한 성품·괄괄한 성품, 부

드러운 성정·표독스런 성정, 느긋한 성미·다급한 성미, 진취적 기상(氣象)·보수적 기상, 능동적 기질·수동적 기질·불같은 기질·차분한 기질, 원만한 성격·모가 난 성격과 감성적으로 예민한 기질·이성적 합리적 기질 등이 있다.

## 후천적 수양으로 성향 변화

타고난 바탕 차원의 본질(本質)의 개념이 의미하는 소질(素質)·자질(資質)·체질(體質)이 그러하듯이 선천성(先天性)인 ‘천성(天性)’을 체로 하되, 보다 중요한 성장기 가정을 비롯

한 주위환경과 자기 수양 및 교육적 감화에 따른 지배요소가, 각기 다른 기질적 성향과 하나로 접목되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악의 마음이 일어난다. 더하고 덜한 정도의 차이는 개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후천적 수양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이 같은 요지로 하는 ‘기질적 성향론’이 가리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악이 일어나는 마음’이 곧 ‘본성(本性)’이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인연(因緣, 직·간접의 원인)에 의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는 ‘연기론 연기법’이 인간 본성을 묻는 명백한 해답”이자 재론의 여지조차 불필요한 것은 이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같이 명쾌한 논결(論決)은 인류의 참스승인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이미 밝혀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분별에 갇힌 지식수준의 열은 사고로써 걷도는 언어·문자를 이용해 실속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인 ‘인간 본성’에 대해 당치도 않은 억지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을 통해 짚고 넘어갈 사안(事案)으로, 현행 교과서를 비롯한 ‘대입수능시험 논술 문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장자 등의 사상은 흔히 다루고 출제한다.

### 부처님은 대사상의 원류

하지만 그들 사상의 원류가 되는 대사상가이자 대자비행을 평생 몸소 실천하신 만유의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이 유식학(唯識學)을 통해, ‘인간 본성’에 관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날이 밝혀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불교도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오류를 저지르는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의 근시안적 편협한 시각의 이율배반적 모순과 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가.

이 땅의 불교역사는 이미 1600년이 넘었고 술한 외세의 침략을 그때마다 하나된 민중의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케 한 힘이였다. 또 무심히 피고지는 저 들풀과 해묵은 나무 하나에도 무연하지 않은 불교적 사연이 깃들고 숨 쉬는 토양에서 부침하는

영육과 애환을 함께 한 심성적 동질(同質)의 민족종교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조선왕조 정치권력이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무수한 살상을 부른 쿠데타는, 살생을 제일 금기시하는 자비의 종교, 불교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욕에 사로잡힌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폭력을 합리화·정당화하여 흠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책이 필요했다.

### 승유억불은 우민화의 도구

그에 따라 사람이면 당연히 배워 알아 할 일반적 도덕률 수준에 지나지 않은 유학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배이념으로 삼아 통치하기에 수월토록 우민(愚民)정책의 도구적 수단으로 그 가혹함이 승유억불(崇儒抑佛)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이는 공·맹사상이 아니라서 점과 더불어 당시 왕실의 기복에 치우친 불교행사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과 사원이 차지한 많은 토지와 소작 등으로 이익을 좇는 그릇된 불교의 행실이 고려의 쇠퇴를 불렀다는 게

억불의 이유였다.

안팎으로 어지럽던 고려 말, 정신을 맑히려 할 불교조차 본분사(本分事)에서 벗어나 왕실과 지배세력과 결탁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농노(農奴)를 사유화하는 등 물질적 이윤을 추구하는 빗나간 행태를 일삼았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성리학자와 신진사대부 계급의 비판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억불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자업자득이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불교는 무려 오백년간, 일상의 윤리·도덕 차원일 뿐인 공·맹의 유학에 밀리면서, 그들의 비이성적인 허다한 행패와 갖은 야만적인 험악한 모습 짓을 눈앞에서 보고도 당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고려 중기 충렬왕 14년에 왕을 따라 원(元)나라 연경(燕京)에 갔던 문신 안향(安珦, 1243-1305)이 주자전서(朱子全書)를 필사하여 돌아와서 주자학을 연구한 것이 문헌상 이 땅에 유학이 들어온 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서는 신라시대



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체 만법이 오직 마음에서 짓는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스님은 서라벌성을 다니며 노래하기를 “내 능히 나라를 떠받칠 대들보감을 만들 것이니, 누가 도끼 없는 자루의 도끼가 되고자 하는가?” 하며 외치자 진평왕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게 하여 설총(薛聰)을 낳았고, 원효는 대승적 차원에서 설총이 자신의 뜻에 따라 유학의 길을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총은 한자(漢字)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데 쓰이던 이두(吏頭)문자를 창안, 이것이 훗날 일본이 ‘가나글자’를 만든 원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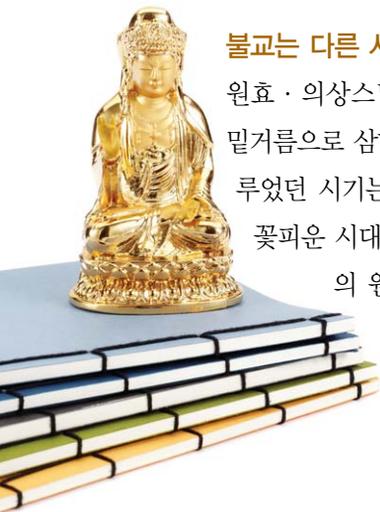
### 불교는 다른 사상도 포용

원효·의상스님의 사상적 기반을 밑거름으로 삼한(三韓)의 통일을 이루었던 시기는 불교문화가 찬란히 꽃피운 시대의 주체적 힘의 사상의 원융함은 비단 불교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른 학문이나 믿음 또한 수용하고

포용하며 감싸 안은 덕성으로서의 자애로움이었다. 이 같이 신라인의 고취된 불심(佛心)은 나와 뜻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질시하는 분열과 대립을 초월한, 상호공존을 위해 여럿(다양성)으로서 하나되는 동질성인 공동체적 융화로 국익을 도모하는 격조 높은 문화였다.

돌이켜 보건데, 만약 그 시대 신라 불교가 배타적이고 편협한 획일적 방식으로 조선왕조 유학과 같았다면, 설총은 나오지 못했으며, 그 무렵 신라 땅에 유학의 씨뿌림조차 어려웠으리라.

이처럼 유학은 이 땅에 뿌리내린 민족적 심성인 불교의 후덕한 토양의 덕을 입었음을 잊은 채 배은망덕하게도 도리어 역행하며 모질게 탄압하고 억압한 유학이 끝내 자멸하듯이 조선의 멸망과 몰락의 길을 함께 한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왕조 태생부터가 부도덕하고 인륜을 저버린 잔혹한 짓을 일삼으며 반란을 통한 집권과정을 보면 탐욕에 마음을 뺏긴 인간은 금수보다도 못한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



# 주존불을 알면 전각을 알 수 있다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사찰에서는 금당을 비롯한 여러 전각에 예배와 존숭의 대상이 되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고 있다. 각각의 전각의 명칭은 주존상(主尊像)으로 모시는 불보살에 따라 달리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전각의 명칭에는 대웅전·대웅보전·영산전·팔상전·나한전·응진전 등이 있으며, 법화경에 의한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상징한다.

## 대웅전과 대웅보전

‘대웅(大雄)’이란 법화경 수기품에 ‘대웅맹세존제석지법왕(大雄猛世尊諸釋之法王)·대웅맹세존상욕안세간(大雄猛世尊常欲安世間)’이라 하였고,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에 ‘대웅세존(大雄世尊)’이라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사마(四魔)를 항복시켰다는 뜻에서 붙여진 부처님의 덕호(德號)에서 유래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생(四生)의 자부(慈父)이자 삼계(三界)의 도사(道師)이므로 대웅전(大雄殿)은 ‘위대한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란 뜻이다. ‘석가(釋迦)’란 석가족(釋迦族)을 말하고 ‘모니(牟尼)’란 위대한 어른, 즉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어른이란 뜻이다.



법주사 팔상전

따라서 대웅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후불탱화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 근처에 있는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옮긴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봉안하였다.

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던 마왕 파순과 그 권속을 굴복시킨 것을 상징한다. 형태는 결가부좌한 채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풀어 오른쪽 무릎 위에 엮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땅에 대

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해서 배꼽 앞에 놓은 선정인 그대로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수행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처가 깨달은 존재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더 있을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도 부처는 존재할 수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단독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 불보살이 협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두루 하신다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의미와 동방과 서방을 포함하는 공간적인 의미와 수행과 중생제도라는 방편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운사 대웅보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이 협시하기도 한다. 문수보살은 대지문수보살(大智文殊菩薩)로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대행보현보살(大行普賢菩薩)로 실천을 상징한다.

삼세불(三世佛)로 모시기도 한다. 중앙에는 현세불(現世佛)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왼쪽에는 과거불(過去佛)인 제화갈라불(연등불 · 정광불), 오른쪽에는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불(彌勒佛)을 봉안하고, 그 좌우에 가섭과 아난존자가 시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삼세불을 모시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도 부처님은 계속 존재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세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투시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좌측에 동방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를 상징하는 약사여래불과 우측에 서방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모시고 대웅전의 격을 높여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좌우에 따로 협시보살을 봉안하기도 하는데 공간적으로 삼계불(三界佛)에 해당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사람인 가섭존자와 아난존

자를 모시기도 한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로 엄격하게 수행한다 하여 두타제일(頭陀第一)이라 하며, 부처님의 왼쪽에 흰 수염을 하고 서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시자(侍子)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들었다 하여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하며 부처님의 오른쪽에 삭발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관음신앙(觀音信仰)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신앙(地藏信仰)으로 현세와 내세에 구원을 바라는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 모시는 예도 있다.

### 영산전 · 팔상전 · 나한전

영산전(靈山殿)은 대웅전과 달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생역정이 담겨 있는 사적 공간으로 팔상전(捌相殿)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시고, 후불탱화에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범화경을 설법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봉안하여 영산불국토(靈山佛國土)를 상징한다. 따라서 영산전을 참배함으로써 사바세계의 불국토인 영산회상에 참배하는 것이 된다.

영산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탄생 이전-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 탄생-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 출가동기-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 출가-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 수도-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 성도-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 첫 설법-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 열반-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의 여덟 단계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八相圖)를 봉안하고 있다.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단계로 나누는 것은 사성제나 팔정도, 그리고 십이연기와 같이 4와 4의 배수가 불교에서 완성이라는 만수(滿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범화경을 설법하시던 모습을 재현한



① 고운사 나한전 ② 거조암 영상전

것이어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영천 거조암에서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을 모신 전각을 영산전이라 한다.

나한전(羅漢殿)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한 깨달은 분들을 모시는 공간이다.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불교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함은 불제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위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학(無學)’이라 하고, 번뇌의 도적을 다 죽였기 때문에 살적이라 하며, 대중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응공(應供)’

이라 하고, 또한 생사의 과보를 받지 않아서 ‘불생(不生)’ 이라 한다. 이러한 아라한은 진리와 상응하였기에 ‘응진(應眞)’ 이라 한다.

십육나한 또는 십팔나한을 모신 전각을 응진전(應眞殿) 또는 응공전(應供殿)이라 하며, 오백나한을 모신 곳을 오백나한전 또는 영산전이라 부른다.

나한상(羅漢像)은 일반적으로 16나한·18나한·500나한으로 한정하나, 넓게는 조사상(祖師像)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의 인물상도 포함한다. 엄격한 도상법이 적용되는 불보살(佛菩薩)과는 달리 나한상은 비교적 자유로워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한은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고 매우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오백나한전으로는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銀海寺居祖庵靈山殿)의 오백나한상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의 오백나한전이 유명하다. 특히 거조암 영산전의 오백나한상은 그 형상이 모두 다르고 특이하며, 영험이 높기로도 유명하다.

이밖에 성혈사 나한전(聖穴寺羅漢殿, 보물 제832호), 쌍계사 나한전(雙溪寺羅漢殿,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4호), 불영사 응진전(佛影寺應眞殿, 보물 제730호), 기림사 응진전(祇林寺應眞殿,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4호) 등이 유명하다. 모두 조선 중·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여 좌우에 석가모니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들을 봉안한다. 보통 석가모니불과 16나한을 모신 응진전(應眞殿)과 석가삼존을 중심으로 500인의 아라한을 모신 오백나한전(五百羅漢殿)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소승(小乘)의 최고 교법인 아라한과를 얻은 5백성중(五百聖衆)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후세에 오백나한의 숭배가 성행하여 절에 따로 나한전을 세우고, 그 상을 안치하는 관습이 생겼다. 이 오백나한은 중생에게 복덕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데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많은 나한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자연과의 절묘한 조화로  
아름다움이 가득한, 선암사

아름드리 삼나무와 참나무, 아름다움 극치를 더하는 홍매화, 그리고 낮은 키의 차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차밭 등 선암사는 자연과 가장 잘 어우러진 사찰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선암사는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엔 단풍, 겨울에는 동백 등 계절마다 다른 자태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특히 봄이 아름답다. 봄이면 선암사 그 자체가 바로 화원이 된다. 제일 먼저 매화가 꽃을 피운다. 600여년 된 홍매화는 그 기품이 당당하며 흔히 '선암매'라고 불린다. 원통전 뒤의 굽직한 선암매도 일품이지만 무전 돌담길 아래에 피어난 매화는 더 황홀하다.

신라 말기인 서기 875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이 바로 선암사(仙巖寺)이다. 한국불교 태고종 태고총림인 선암사의 원래 이름은 청량산 해천사(海川寺)였다. 이후 대각국사 의천이 선암사 대각암에 주석하면서 선암사를 중창해 천태종을 널리 전파하는 호남의 중심사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암사도 다른 절과 마찬가지로 정유재란 때에 큰 피해를 입어 모든 전각이 불타고 철불, 보탑, 부도, 문수전, 조계문 등만 남았다. 영조 35년(1759) 봄에 선암사는 다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후사가 없자, 정조 13년(1789)에 놀암스님은 선암사 원통전에서, 해봉스님은 대각암에서 각각 100일 기도를 해 1790년에 순조가 태어났다고 한다. 나중에 순조는 인천대복전(人天大福田)이라는 편액과 은향로, 금병풍, 가마 등을 선암사에 하사했다고 한다. 순조 23년(1823) 3월 실화로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동의 건물이 불에 타자 이듬해부터 해봉, 놀암, 익종스님 등이 제6중창 불사를 하여 현재의 가람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선암사는 강원과 선원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종합수도 도량이

다. 특히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사연과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다. 이 사찰에 속한 보물급 문화재만 해도 승선교, 삼층석탑, 대각암 부도, 대웅전 등 총 9개나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승선교이다. 승선교(昇仙橋)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다리로 소문나 있다. 선암사 입구에 있는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는 보물 제400호로 ‘신선이 되는 다리’란 뜻이다. 이 다리를 건너 선암사에 가서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암사는 사찰의 터 기운이 세서 다른 절에 있는 사천왕상이 없고, 승선교를 건너기만 해도 세속의 잡념과 묵은 때를 털어버린다”는 속설도 있다.

승선교는 호암스님이 숙종 39년(1713)에 세운 돌다리로 높이 7m, 길이 14m, 너비 3.5m로 돌다리치고는 규모가 꽤 큰 편이다. 양쪽 기단을 천연 암반에 두고 쌓았기 때문에 웬만한 폭우에도 끄떡없다고 한다.

다리 한복판에는 용머리를 조각한 돌이 밑으로 삐죽 나와 있어 장식적 효과를 주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것을 뽑아내면 다리가 무너진다고 전해오고 있다.

승선교를 제대로 보려면 계곡으로 내려가야 한다. 승선교 다리 밑에서 바라보



1



2



3

1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뒤간 2 대웅전 3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승선교

는 강선루(降仙樓)는 승선교와 더불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온다. 강선루는 신선이 하늘에서 하강하는 누각이다. 강선루는 사찰의 실질적인 경역이 시작되는 출입용 문루이다. 대부분의 사찰은 누문이 일주문 안쪽에 위치하는데, 선암사는 사찰의 경계선에 두어 계곡과 어울리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긴 알 모양의 연못인 삼인당은 섬안에 섬이 있는 독특한 양식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연못은 선암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경문왕 2년(862)에 도선국사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삼인이란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의 삼법인을 뜻한다.

선암사에 들리면 뒤간(해우소)은 꼭 한번 들러야 한다. 보통 사찰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뒤간이라고 한다.

“출입구 맞배지붕의 곡선미가 매우 고즈넉해 ‘뒷간’이라고 쓴 나무 표지판을 보고서도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선방인 줄

알았다. 역겨운 암모니아 냄새 대신 바람과 햇볕 냄새가 은은히 났다.”

정호승 시인은 ‘선암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는 시에서 선암사 뒤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암사 뒤간은 전남 문화재자료 제214호로 사찰의 해우소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이곳 밖에 없다.

선암사에는 부도들도 많다. 절 입구에 있는 부도밭과 서부도밭, 대각암 부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선조암터 부도(북부도)와 무우전 부도(동부도)가 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도들만 보아도 선암사를 다 본 것과 같다. 그리고 해우소 옆으로 난 산길을 따라 대각암에 오르는 길목에는 마애불이 있다. 자연 바위 벼랑에 5m 높이로 새겨진 이 마애불은 고려 중기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가장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선암사. 선암사는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볼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늘 아늑함이 살아있는 사찰로 꼭 한번 찾아봄직 하다.

### 선암사 가는 길

**대중교통** 대구에서 순천행 고속버스→순천→선암사행 버스    **승용차** 구마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승주IC→지방도로 857번→죽학삼거리→선암사 / 벌교→낙안읍성→승주방향→고개→승주호→죽학삼거리→선암사

#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100일간의 대법회 백고좌법회(百高座法會)



법왕사에서는 4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제24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1백일 동안 1백인의 고승대덕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는 호국불교의 근본 경전인 인왕반야경에 의거한 법회로 이미 신라시대에 성행했던 법회 방식이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들어서자 억불정책에 의해 그 맥이 끊어졌다가 1994년 법왕사에서 처음으로 백고좌법회를 개최한 뒤 지난해까지 23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4월 17일 백고좌법회 입재를 앞두고 백고좌법회의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 알아본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큰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여는 것이다. 백고좌법회의 경전상 근거는 불설인왕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이다.

인왕반야경에 보면 '부처가 대왕에 고하시되 내가 지금 국토를 수호하는 법의 이 용을 바르게 설명할 것이니, 너희들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지켜라. 국토가

전란으로 파괴되고 외적이 쳐들어와 약탈하며 파괴될 때, 백개의 불상, 백개의 보살상, 백개의 나한상, 백명의 비구중·사대중·칠중을 청하고 백명의 법사(法師)를 청하여 듣고 반야바라밀을 강하게 하되 백개의 사자고좌(獅子高座) 앞에 많은 등을 켜고 백개의 향을 사르며 백종색화(百種色花)로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세 가지 옷과 물건으로 스님들을 공양하되 소반중식(小飯中食)도 거둬하라. 대왕아 하루에 두 번씩 이 경문을 강독하면 너의 나라 안에 100부(部)의 귀신이 이 경문 듣기를 즐겨 너의 국토를 보호할 것이다. 대왕아 국토가 어지러움은 귀신이 난을 일으킵시오, 외적이 침노하면 백성이 상을 당하고 국왕과 백관이 함께 살 수 없으며 천지가 괴이하여 28숙(宿)과 성도일월(星道日月)이 먼저 때를 맞추지 못하고 도처에서 도적이 일어나리라. 대왕아 화난(火難)·수난(水難)·풍난(風難)과 일체의 여러 재난에도 이 경문을 강독하여 응할지니 법용(法用)은 위의 강경(講經)과 같으리라.’(「仁王般若波羅密經」下, 護國品5)

이를 통해서 볼 때, 백고좌법회는 기본적으로 내란과 외환을 막고 나라 안팎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베푸는 법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회를 베푸는 하나의 의미는 국왕이 부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지키고 평안하게 하는 존엄한 존재임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즉, 백고좌법회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호국불교(護國佛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회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백고좌법회가 처음 개설된 것은 신라 진흥왕 12년(551) 때였다. 이때 진흥왕은 고구려에서 귀화한 혜량법사(惠亮法師)를 승통(僧統)으로 삼고 백고좌법회와 팔관의 법회를 처음 마련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진흥왕은 신라가 영토를 크게 확대하고 거기에 사는 민인(民人)을 신라인으로 적극 포섭·편제하였던 정복 군주였다. 또한 그는 불교에서 이상군주로 일컫는 전륜성왕(轉輪聖王)임을 스스로 자처하여, 불교를 통해 국왕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려 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고구려 혜량법사의 귀화를 받아들이고 호국법회인 백고좌강회를 처음 개최하게 했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존재임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백고좌법회는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었다. 먼저 진평왕 35년(613)에는 수나라 사신 왕세 의(王世儀)가 왔을 때 황룡사(皇龍寺)에서 백고좌법회를 베풀어 원광(圓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신라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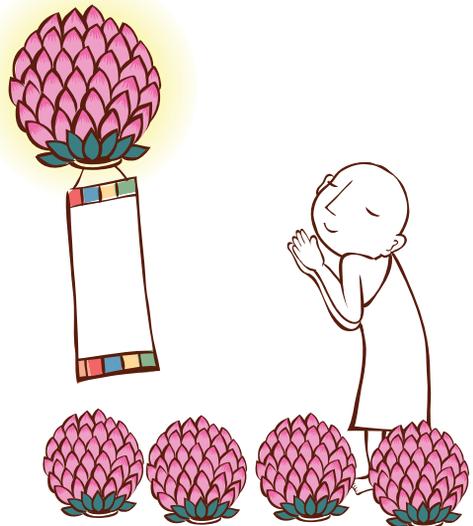
그래서 진평왕은 608년에 원광(圓光)으로 하여금 결사표(乞師表)를 쓰게 하여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칠 것을 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수에 요청한 군사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왕세의가 신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호국법회인 백고좌법회를 베풀고 결사표를 쓴 장본인인 원광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케 했다는 것은, 수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라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엿보게 해준다.

백고좌법회를 베풀 곳인 호국대찰인 황룡사였다는 점은, 국란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베풀다는 본 법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후의 백고좌법회 역시 국가에 어려움이 닥칠 때 예외없이 황룡사에서 베풀어지고 있다.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지진이 일어나 가옥이 파괴되고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를 베풀게 했다.

이러한 백고좌법회는 고려시대에도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 행사로서 명맥을 이어갔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백고좌법회는 그 명맥이 끊어져 500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이후에도 백고좌법회는 관심밖이었는데 90년대에 들어 포교에 열정적인 스님들에 의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법왕사는 20여년 동안 매년 백고좌법회를 개최하면서 법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법왕사에서는 때로는 봄가을, 혹은 주야로 두 차례씩 열기도 했으며 불교의 주요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주제로, 혹은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전반에 걸쳐 열기도 했다. 오는 4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간 법왕사에서 열리는 제24회 백고좌법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의 수준 높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법왕사 소식

## 4월 19일 제24회 백고좌법회 입재



제24회 백고좌법회가 오는 4월 19일(음력 3월 10일 신장재일) 입재하여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백고좌법회에서는 불교 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 대설법회'로 전국의 고승대덕 100분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간 법석을 열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초청하고 싶은 스님들을 적극 추천하시면 법사로 모실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4월 4일 연화사 이동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4일 경남 통영 연화도의 관음도량 연화사에서 이동법회를 봉행합니다. 연화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큰스님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연화도의 빼어난 풍광과 잘 어우러진 관음도량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영험한 도량에서 기도를 올리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4월 5일 식목일 경내 식수행사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경내에 은행나무 50그루를 식수합니다. 묘목은 불자들의 보시로 총당할 예정인데 한 그루당 10만원입니다. 도량을 가꾸고 꾸미는 일 또한 공덕이 무량하며 불보살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일이므로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법왕사 입구에 간판석 조성, 좋은 글귀 공모



법왕사 입구에 거대한 자연석으로 만든 간판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왕사로 들어서는 초입 위치와 본당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오른쪽에 세워진 간판석에는 불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부처님의 금언성구를 새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글귀를 널리 공모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구경 등 불교경전이나 조사들의 어록, 기타 출전을 가리지 않고 좋은 글귀를 공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왕사 소식

## 본당 단청, 각령단 삼존불 닷집 조성



본당 단청과 정무 대중사 각령단, 삼존불 닷집 불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삼존불과 각령단을 여법하게 봉안하고 장엄하는 단청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 달에는 회향할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팔상성도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3월 19일(음 2월 8일) 부처님 출가재일을 시작으로 26일 열반재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큰 주제로 나눈 팔상성도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서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중생구제를 위해 보이신 모든 행적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매월 양력 초하루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를 봉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중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불공을 올리고 법회를 해왔는데 현대사회에 맞게 양

력 초하루에도 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문화교실 신학기 무료강좌 개최



법왕사에서는 2013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문화교실 강좌로 요리, 다도, 꽃꽂이, 풍수지리, 참선반, 함창단, 사물놀이 등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여가선용과 함께 교양증진, 취미생활이 자 수행의 한 방편인 법왕사 문화강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시민선방 입방자 모집중



법왕사에서는 시민 누구나 동참하여 참선수행을 하는 시민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통 간화선 수행을 하고 싶은 불자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수행 경력이 풍부한 스님과 재가불자들과 함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선방 개설 시간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불교대학 초중급 주야간 모집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법왕 불교대학에서는 초중급 과정 주야간반을 모집합니다.

# 법왕사 소식

현재 중급반은 हे능스님의 입보살행론 강의가 진행 중이며 초급반은 기초교리, 사찰예절, 기초경전 등을 주지스님 직강으로 개설하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04위 만불전 신중탱화 불사



법왕사는 만불전 뒤편 104위 신중탱화 불사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봉안예정이며 현재 접수중입니다. 신중탱화는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큰 공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학부모 불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04위 신중탱화 불사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십시오.

## 깨끗한 청송 메주 판매, 1kg당 2만원



법왕사에서는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을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인 법왕사 메주를 1kg 기준 2만원에 판매하오니 장 담그기 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종무소 사무국장으로 고재일 거사님께서 지난 3월 16일 부임하셨습니다.**

# 법왕사 게시판

## 새법우 명단

수성구 김광배 고설민 김무경 고학성 박정옥  
 고영민 고설화 김상석 이주영 김창혁  
 김진혁 김소영  
 서 구 김태곤 김미숙 김미성  
 남 구 고선순 고 솔 고성진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간엄부 김해후인 김석만 靈駕(김선동 김수동 복위)  
 간조부 남양후인 홍재우 靈駕(홍순영 복위)  
 간조모 여흥유인 민당저 靈駕(홍순영 복위)  
 간엄부 남양후인 홍중봉 靈駕(홍순영 복위)  
 간자모 한산유인 이귀순 靈駕(홍순영 복위)  
 간자모 흥해유인 배화성 靈駕(홍순영 복위)  
 간동생 남양후인 흥순호 靈駕(홍순영 기부)  
 간엄부 평해후인 황명준 寧暇(황치구 복위)  
 간엄부 김해후인 김상수 靈駕(김동주 복위)  
 간엄부 진주후인 하중두 靈駕(하명관 복위)  
 간엄부 장흥후인 고광호 靈駕(고정수 복위)  
 간엄부 김해후인 김달석 靈駕(김영홍 복위)  
 간자모 밀양유인 박 氏 靈駕(김영홍 복위)  
 간자모 정선유인 전정숙 靈駕(김영홍 복위)  
 간엄부 밀양후인 박희태 靈駕(박명영 복위)  
 간자모 안동유인 김금연 靈駕(박명영 복위)  
 간조부 밀양후인 박 公 靈駕(박동근 복위)  
 간조모 평해유인 황 氏 靈駕(박동근 복위)  
 간엄부 밀양후인 박태각 靈駕(박동근 복위)  
 간엄부 평해후인 박동섭 靈駕(황미선 복위)  
 간자모 문화유인 류택연 靈駕(황미선 복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495 이승원 496 이승희 373 여지환  
 734 오봉균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초파일 대등 다신 분

1 남경전기 2 돌방ENG 3 이화꽃집

# 법왕사 게시판

## 새롭게 법당인등 모신 분

63 이기창 563 곽재혁 564 정서연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법당 일년등 다신 분

193 여축동 194 홍양호 195 박순영  
196 김종환 197 정환무 198 김정형  
199 김기동 200 권혜경 201 권호암  
202 양영갑 203 수성하이빌 거주자 일동  
204 권순경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법당 꽃등 다신 분

16 양문갑 17 운암양생차

## 팔각대등 다신 분

17 운암양생차

## 만불전 104위 신중탱화 설판제자

조준승 김승덕 조병채 김숙희 조희진  
조민섭 조병완 이연령 조동균 조수민

### - 동참하신 분

이영석 장일선 박준만 조현봉 이재학  
신성호 신세호 김지혜 한재웅 이성범  
김경희 김명수 유성종 최광섭 최재현  
김상수 정연수 조명희 정윤재 정미화  
신성호 신세호 이지승 김수연 김정호  
최현무 최자윤 김임태 마재영 마재승  
마승화 마한솔 최남구 최남익 권민서  
김상석 장민우 이선희 권혁일 양봉훈  
양혜영 양지영 남창영 남학형 정민경  
권재현 권보형 양영갑 권귀정 양혜진  
양봉률 최은영 박병기 주복귀 한현식

## 영가등 다신 분

◎ 김기호 복위 언부후인 진도 김공 경환 영가  
언나유인 진도 김씨 미숙 영가  
언동생후인 진도 김공 기화 영가  
언동생후인 진도 김공 기석 영가

언동생후인 진도 김공 영가

언동생후인 진도 김공 영가

◎ 박일순 복위 언부후인 밀양 박공 종수 영가

◎ 여택동 복위 언부후인 성산 이공 상수 영가

◎ 김의환 복위 언외조부후인 경주 최공 태조 영가

◎ 최태희 복위 언고조부후인 충주 최공 주연 영가

언중조부후인 충주 최공 기선 영가

언중조모유인 평산 신氏 영가

언조부후인 충주 최공 진주 영가

언조모유인 려흥 민氏 영가

언부후인 충주 최공 면정 영가

언자모유인 경주 이氏 영가

◎ 채용자 복위 언부후인 평강 최공 갑복 영가

언자모유인 조씨 규례 영가

◎ 신민호 복위 언부후인 아주 신氏 기두 영가

언자모유인 함양 박씨 삼옥 영가

◎ 권혁만 복위 언조부후인 안동 권공 준필 영가

언조모유인 곡씨 두리 영가

언부후인 안동 권공 돌수 영가

언자모유인 이氏 복덕 영가

언고모유인 안동 권공 말수 영가

◎ 최윤주 복위 언동생후인 경주 최공 규석 영가

◎ 지세환 복위 언부후인 봉산 지공 동훈 영가

◎ 박호현 복위 언조부후인 밀양 박공 도학 영가

언조모유인 고성 이氏 을조 영가

언부후인 밀양 박공 재희 영가

◎ 권영세 복위 언부후인 안동 권공 태익 영가

언자모유인 양근 김氏 선녀 영가

◎ 정종영 복위 언아내유인 경주 김氏 은조 영가

◎ 권기정 복위 언형님후인 안동 권공 기철 영가

◎ 박귀남 복위 언남편후인 영천 이공 희만 영가

◎ 류윤만 복위 언부후인 문화 류씨 필보 영가

언자모유인 남양 홍공 귀순 영가

◎ 양문갑 복위 언부후인 중양 양씨 재섭 영가

◎ 황준영 복위 언자모유인 달성 서씨 덕선 영가

◎ 권오국 복위 언부후인 안동 권공 영옥 영가

언자모유인 의성 김씨 종교 영가

◎ 고정수 복위 언부후인 장흥 고공 광호 영가

◎ 고재명 복위 언부후인 재령 고공 진환 영가

◎ 문충복 복위 언부후인 남평 문공 석동 영가

언자모유인 나주 나氏 영자 영가

◎ 송용훈 복위 언중조부후인 은진 송공 영가

언중조모유인 강氏 영가



## 법왕사 게시판

원불봉안	김승한 1만원	김옥자 1만원
	남경순 2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숙 1만원	심향숙 3만원
	양수한 4만원	이현숙 4만원
	최유자 3만원	김금순 4만5천원
	김점숙 2만원	남경순 2만원
	이현주 3만원	이호진 1만원
	조경희 5만원	
산신인등	권미연 5천원	권형식 5천원
	전성복 1만원	정영미 5천원
	차상근 5천원	김영희 2만원
	하일화 5천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대 불	조경희 5만원	
일 년 등	채영주 2만원	
기 타	김수정 1만원	김연자 1만원
	김재현 1만원	심영선 1만5천원
	이관수 2만원	전광환 1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5천원

### 녹색봉사단 30명(3월 17일) 봉사활동



### 일반봉사자(3월 22일) 봉사활동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오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왕사 계좌번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해오름 소식

### 작은행복봉사단 13명(3월 10일) 봉사활동



## 해오름 게시판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2월)

#### ◎ 수입내역

안상준 2만원	강소남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박태숙 5천원	유명옥 1만원	정광춘 5만원
김기덕 2만원	이임숙 2만원	한규매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인순 5천원	김봉숙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병희 1만원	신돈식 2만원
김순란 3만원	신구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박학순 1만원	김정희 2만원	윤순희 1만원

# 해오름 게시판

- |         |         |          |
|---------|---------|----------|
| 김미옥 2만원 | 김수라 1만원 | 최분규 1만원  |
| 양나영 5천원 | 신혜경 5천원 | 고재명 2만원  |
| 안명희 1만원 | 황미선 2만원 | 현인숙 1만원  |
| 노수정 1만원 | 권계화 1만원 | 장우성 1만원  |
| 김정순 3만원 | 이은희 5천원 | 박종성 1만원  |
| 박경훈 1만원 | 최경순 1만원 | 성외련 2만원  |
| 고연숙 1만원 | 정활수 3만원 | 임상덕 1만원  |
| 김임태 5천원 | 정시영 1만원 | 권보령 2만원  |
| 홍세림 1만원 | 홍새미 1만원 | 조규인 1만원  |
| 이원래 1만원 | 사공관 1만원 | 이성자 5천원  |
| 채옥연 5천원 | 배수현 2만원 | 신도식 1만원  |
| 여택동 5천원 | 최학영 10만 | 원이종희 5천원 |
| 안경순 1만원 | 장인숙 5천원 | 권오성 1만원  |
| 강태출 5천원 | 박태수 5천원 | 박창목 5천원  |
| 이현우 1만원 | 김유진 1만원 | 문정애 2만원  |
| 류윤만 5천원 | 노귀자 5천원 | 이정옥 1만원  |
| 정무시 1만원 | 김정임 1만원 | 권숙자 1만원  |
| 현영희 1만원 | 강영도 2만원 | 이정훈 1만원  |
| 심규암 5천원 | 김정자 5천원 | 김기수 2만원  |
| 구정대 2만원 | 김순태 1만원 | 김민주 1만원  |
| 강선옥 1만원 | 김진성 1만원 | 심중순 5천원  |
| 오금옥 1만원 | 박대희 5천원 | 이남희 1만원  |

**합계 1,085,000원**

##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2월 총 사용내역 66,000원**

**잔액 1,019,000원** (2013년 2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 물품 후원자

- 녹색환경봉사단 : 요플레 50개
- 윤말줄 어르신 보호자 : 피자 2판
-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한라봉 1Box
-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울릉도나물 2Box
- 장말순 어르신 보호자 : 방울토마토 1팩
- 박상희 : 떡 1Box, 비타500 2Box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 서선하 어르신

※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 사회복지 현장실습 하시는 분

###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상희

※ 해오름요양원에서 최선을 다해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 ● 자원봉사자 모집

해오름요양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전화접수 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 해오름 게시판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  
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  
입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동참 받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  
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족등 10만원 이상
- 🌸 영가등 5만원 이상
- 🌸 사업등 20만원 이상



-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계 / 좌 / 번 / 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애망원, 애활원, 송원아파트, 법왕사, 우회도로, 공사중

#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가창방면에서 신천좌안도로를 이용해 오시는 법우님들은 **상동교**에서 **유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제24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대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첫째날**  
 4월 19일  
 입제법문  
 향봉사님  
 익산 사자암 주지



● **99일차**  
 7월 26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해능스님  
 전 해인사 올림장



● **100일차**  
 7월 27일  
 회향법회  
 불심 도문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 ◆ **증명 : 중심문도회(대표 : 회주) 학승 심경스님**
- ◆ **일시 : 2013년 4월 19일 ~ 7월 27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4월 19일 ㉞	향봉사님	사자암 주지	11일차	4월 29일 ㉟	도오스님	경흥사 주지
2일차	4월 20일 ㉟	묘각스님	묘현사 주지	12일차	4월 30일 ㊱	묘허스님	방곡사 회주
3일차	4월 21일 ㊱	해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13일차	5월 1일 ㊲	현웅스님	육조사 선원장
4일차	4월 22일 ㊲	영산스님	해룡사 주지	14일차	5월 2일 ㊳	광명스님	비로선원 주지
5일차	4월 23일 ㊳	일진스님	운문사 주지	15일차	5월 3일 ㊴	가산스님	원응사
6일차	4월 24일 ㊴	반산스님	원각사 주지	16일차	5월 4일 ㊵	현정스님	대원사 주지
7일차	4월 25일 ㊵	해성스님	삼불사	18일차	5월 6일 ㊷	각현스님	연꽃마을 대표
8일차	4월 26일 ㊶	동봉스님	우리절 주지	21일차	5월 9일 ㊹	마가스님	미타정사
9일차	4월 27일 ㊷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 회주	23일차	5월 11일 ㊻	정범스님	구봉선원
10일차	4월 28일 ㊸	대주스님	대륜사	24일차	5월 12일 ㊼	영석스님	동국대 교수

계사년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8747 F. (053)767-6095